

# kiri Weekly

2015.6.29 제339호

## 포커스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 글로벌 이슈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의 최신 동향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인터넷 전문은행, 쟁점과 전망

전용식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 요약

■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행 은행의 업무 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완화할 계획임. 은산분리 예외적용과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 개정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금융위원회의 방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매금융 중심의 사업구조가 예상됨.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난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우리나라의 IT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및 핀테크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모바일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되고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금융과 정보통신부문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핀테크 활성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일부 지급결제사업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의향이 있다고 밝힘.
- 인가 심사기준에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임.

-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함.

-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후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인가하기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확대하고 자본금 규제를 500억 원으로 인하함.
    - 2015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을 금지함.
-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4%에 불과함.
- 기존 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현재도 가능함.

〈표 1〉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도입방안	구체적인 내용
소유구조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 4% → 50% 상향조정
최저자본금	은행업 인가 절반수준인 500억 원으로 완화
업무범위	일반은행과 동일
건전성규제	자기자본 및 유동성 비율 등 일정기간 예외 인정
기타	전산설비 구축 외부위탁 허용, 계좌개설시 다양한 비대면확인을 통한 실명확인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6. 18).

■ 현행 은행의 업무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자산규모와 취급 업무를 고려하여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

- 건전성 규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하는 BaselⅢ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Basel I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유동성 규제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특수은행의 규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함.
    - 유동성 규제(LCR)<sup>1)</sup>의 경우에도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적이므로 일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80%)이 아닌 특수은행의 규제비율(60%)을 우선 적용하기로 함.
- 은산분리 규제와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완화는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기존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근거가 부족함.
  - 은행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고유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의 방안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될 경우 기존 은행들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은행 고객들의 거래 은행 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고객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고 정보통신 기업들은 은행업 경험이 부족함.
  - 저금리-저수익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으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미쓰비시도쿄은행과 통신사업자인 KDDI가 설립한 지분뱅크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분뱅크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절감 등으로 2008년 7월 출범 이후 4년 만인 2012년 흑자 전환됨.<sup>2)</sup>
    - 지분뱅크의 고객은 150만 명이나 인력은 157명에 불과함.<sup>3)</sup>
    - 지분뱅크의 2012년 ROE는 8.3%이며 2014년 총자산은 7,113억 엔, 자본금은 350억 엔이며 개인고객 대상 여수신, 담보대출, 투자상품 판매가 주된 사업임.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현금·국채 등 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2) 지분뱅크의 2014년 기준 이자수익 비중은 69%, 수수료 수익 비중이 21%임.

3) FinacleConnet(2014).

〈표 2〉 지분은행과 주요 주주들의 사업 전략

미쓰비시도쿄은행	지분은행	KDDI
여성과 젊은 세대 중심의 고객 세분화	· 관계형 금융보다는 거래형 금융 위주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 전략 · 휴대전화/PC 등을 이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통신서비스 차별화
높은 예금금리 낮은 수수료	부가채널로서 휴대전화가 아닌 계좌 개설에서부터 폐지까지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	은행 고객 유치를 통한 가입자 증가
관계형 금융의 리스크 회피	현금의 입출금은 미쓰비시도쿄 지점의 ATM을 이용	은행업 진출이라는 신성장동력 확보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엔화 및 외화 예금/대출/펀드/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자료: 미쓰비시UFJ 연차보고서.

■ 은행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소기업 대출 등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은 제한적일 것이고 소매금융 사업 비중이 높을 것임.

- 상대적으로 완화된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려는 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매금융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고객에게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매금융 등 거래형 금융이란 정량적 평가에 근거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일본의 주거은행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관계형 금융의 예로 생각할 수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이 현재 은행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긴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해외 은행들은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스마트폰 이용자와 젊은 고객들의 수요 변화, 기술의 발전, 은행업의 보편화, 편의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간 융합 확대와 이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거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와 수수료,

그리고 편의성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

- 설립 및 고객 유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의 혁신과 더불어 금융업권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인터넷 전문은행이 온라인에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함.
  -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20억 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분뱅크의 2014년 말 자본금은 350억 엔임.
  -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의 빈번한 이동과 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미국 통화감독청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승인할 때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그리고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sup>4)</sup>
  - 비대면채널을 통한 실명확인,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방식은 고객 정보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전자금융 사고 규모는 약 3조 원에 이룸.<sup>5)</sup> **kiri**

4) 전용식 외(2015),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 보험연구원.

5) 김종현(2015),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조건』, 우리금융경영연구소.